

## 다노무라 지쿠텐

다노무라 지쿠텐(田能村竹田, 1777-1835)은 오늘날의 다케타시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일본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주로 족자에 그려진 지쿠텐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지쿠텐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병약했기에 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한시와 중국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37 세까지 다케타 지역 학교에서 유학을 가르쳤으며, 이후에는 그림 그리는 일에만 전념하여 일본 전국을 여행하면서 화가들과 교류했습니다.

지쿠텐은 한시, 글, 그림의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한 난가 양식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작품은 주로 도코노마(일본 건축에서 미술품 등을 장식하는 중요한 장소, 상류층이 사는 집의 응접실에 많다.)에 걸리는 족자에 그려졌습니다.

지쿠텐은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동시대의 다른 화가와는 확실히 구별되었습니다. 또한 고향인 다케타 지역과 비슷한 풍경을 난가 양식의 관습에 따라 가상의 풍경처럼 그렸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분고국(오늘날의 오이타현)과 연관 지어 '분고난가'라고 불리는 새로운 난가 운동이 탄생했습니다. 지쿠텐은 자신의 사상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으며, 제자들은 스승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분고난가는 1930 년대까지 활발하게 그려졌습니다.